

# 수·해양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진로탐색장애에 관한 연구

박종운 · 차타순<sup>†</sup>  
(부경대학교)

## A Study on Career Barriers and Career Options with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College Students

Jong-Un PARK · Ta-Soon CHA<sup>†</s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career options and career barriers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309 students(male 628, female 681), who were analyzed with 6 career items and career barrier inventory. Data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wo-way Analysis of Varianc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barriers factors that students experienced a lot were future anxiety and lack of career informations. According to sex,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s on the career barriers, but according to grades, there was meaningful differences on the career barriers. Second, career barriers showed high level in case that students chose their majors according to the factors of professors, score level and others' admonition. And career barriers was higher in cases of the students who had the level of below the common satisfaction on their majors, who had a minor or temporary absence from school because their majors were unsatisfied, who took courses with their pals, who chose their jobs in terms of pay level and working region, and who had uncertainty on their aptitude and interesting.

*keyword : career, career options, career barriers*

### I. 서론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술문명의 급격한 발달, 사회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현대 사회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적합한 진로를 찾고 이에 맞는 진로계획을 세우거나 성취해 나

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개인의 생애를 통해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이다(김은영, 2001). 진로(career)란 생애, 경력, 직업 등으로 해석되지 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개인의 태도와 역할, 그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가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함은 직업적 경력을 의미하는 과거적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11-835-5572 [tscha@pknu.ac.kr](mailto:tscha@pknu.ac.kr)

\* 이 논문은 2008년도 부경대학교 연구년 교수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PS-2007-032)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애 단계에서도 계속 축적해 나가야할 미래적 인생행로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당 수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 및 장래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보다 학교 서열 및 합격 위주의 대학 선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선택의 과정에서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 불투명한 취업전망, 그에 따른 진로 불안 등의 이유로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군 입대나 휴학 등의 수단으로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 1,764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과 취업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2007년 6월 19일) 전체 응답자의 49.5%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나 직종, 기업 등에 대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각 대학교의 상담센터나 학생생활연구소의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학생들이 당면하는 가장 심각한 고민은 바로 진로와 관련된 문제이고 신입생 입학 후 예상되는 문제나 개인상담신청 시 주 호소문제도 진로와 적성 문제가 가장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진로관련 변인들에 대하여 잘 알 필요가 있다. 진로탐색장애(career barrier)는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을 말하는데, 진로관련 변인 중 진로계획이나 진로탐색에 아주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 및 집단의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진로지도 및 상담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해야할 요인이다. 즉,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진

로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진로발달 측면에서나 진로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나 어려움으로 지각하고 있는 장애요인은 어떤 요인인지, 또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김은영, 2001).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수해양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진로장애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탐색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진로선택내용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진로 장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006년 부경대학교 재학생 실태조사에 의하면, 수산과학대학 학생들은 수능 성적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비율이 타 단과대학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재학생들이 휴학을 하겠다는 비율이 6개 단과대학 중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의해 진로를 준비하는 수준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 부경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에서 환경해양대학 신입생들의 학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다는 비율이 타 단과대학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전공선택 이유에서도 합격 가능성으로 전공 선택을 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적성과 흥미를 고려했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이와 같은 측면은 수해양대학 학생들이 진로 선택과 관련한 진로 장애를 타 단과 대학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을 수 있기에, 진로지도 및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해양대학 특수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진로선택에 따라 진로탐색장애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진로탐색장애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따른 진로

탐색장애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선택

지식정보화 시대에서의 대학교육은 개개인이나 개별 대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윤소정·신수진·이은영, 2007).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전환되는 시기에 놓여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욕구와 사회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긴장을 유발하게 되고 여전히 정체위기와 역할혼미를 경험하는 단계에 있다. 이때 개인은 사회의 욕구와 개인의 요구를 잘 통합하는 진로정체(career identity)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로선택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자기탐색과 자기이해, 직업세계의 탐색,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자기탐색과 자기이해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가치관, 성격, 능력, 적성과 흥미는 어떠한지, 자신의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해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탐색과정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이란 자신이 종사할 직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아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자기전공과 관련된 직업세계에조차도 매우 제한적이고 왜곡된 정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사회에서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세계 전체적인 조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정한 직종의 장래전망은 어떤지, 선택한 분야에 가능한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다.

진로선택에 대한 이론들에는 Parsons의 특성-

요인 이론, Roe의 욕구이론, Holland의 직업적 성격유형론,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 등이 있다. Parson(1909)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심리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밝혀내고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었을 때 성공가능성과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직업발달은 인지적인 과정이며 개인의 직업결정은 추론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직업선택은 일회적 사건으로서 누구에게나 자신의 특성에 알맞은 하나의 직업목표가 있다고 본다.

Roe의 욕구이론은 각 개인들의 욕구구조가 초기 유아기의 만족 여부에 달려 있고 개인이 특정 일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지거나 그 직업을 원하는 것은 자신의 내적 욕구체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유전은 흥미와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흥미의 발달은 가족, 문화적인 경험, 성과 인종에 의해 형성된다. 유전과 초기 환경 내 여러 영향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에너지가 집중되고, 이 심리적 에너지는 개인의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요소이다. 따라서 성인의 직업선택을 아동기에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욕구에 대한 반응이라고 봄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과 직업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다.

Holland의 직업적 성격 유형론은 개인의 성격 유형이 진로선택과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개인의 직업적 흥미는 곧 그 사람이 가진 성격의 표현이라는 것이다(차타순, 1996 : 2008, 이희영). 따라서 성격유형과 환경간의 좋은 적합이 이루어지면 개인은 그 직무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유사한 성격과 개인 발달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사한 방식으

로 반응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과 직무환경간의 불일치는 직무불만족, 불안정한 진로통로, 낮은 직무수행을 이끈다고 보고 있다.

Krumboltz(1979)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는지, 왜 특정한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그는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전적 소질과 특성,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경험, 과제접근기술을 제시하였다. 즉 어떤 분야에서는 유전적 소질이 많을수록 이후 학습과 교수에 대해 더 잘 반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과 사건들은 개인의 통제밖에 있으나 역시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Mitchell과 Krumboltz(1990)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적 대안에 영향을 주고,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직업을 낳고 지역의 특성, 교육의 이용가능성, 부모의 교육열의, 학교체제, 직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조건 등도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특정 직업에 대해 가지는 기술의 습득이나 선호도는 이전의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많은 선행 학습 경험의 결과라고 보았고, 인지적 수행능력과 정서적 경향성인 과제접근기술은 환경을 해석하고 미래사건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2. 진로탐색 장애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진로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담자가 자신의 진로발달적 측면에서나 진로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나 어려움으로 지각하고 있는 문제요인은 어떤 요인인지, 또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은영, 2001). 진로장애(career barrier)란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하는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Swanson & Witke, 1997)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장애가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개인 내적(자기-

개념)이고 환경적인(작업장 차별) 요인 둘 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진로장애라는 구성개념은 타당하고 유용한 개념이다.

Gottfredson(1981)은 개인들이 직업적 열망을 실행하기 위해 장애에 직면할 때 자신들의 목표를 타협할 필요에 마주치게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이론은 자기개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환경, 자기개념과 환경의 상호작용 세 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Lent 등(1994)의 사회인지모델은 진로관련 장애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준다. 이 모델에서는 사회인지적 기제 특히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진로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의 흥미, 선택 목표, 선택행동이나 수행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즉 사회인지모델에서는 개인적 요인, 맥락적 요인, 경험적 요인들이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 사회인지적 변인들이 흥미, 목표와 선택행동들 간의 가정된 관계를 중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진로장애들도 개인 내적인 것과 맥락적인 것으로 분류하면서 이런 영향들이 종종 같이 발생하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Swanson & Tokar, 1991a; Swanson & Witke, 1997). 그러면서도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개인적 요인(낮은 자기 효능감 등)과 맥락적인 요인(중요한 타인들의 불승인 등)을 구별하여 각각의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즉 이 두 요인을 구별하는 것은 환경적인 장애요인들이 개인 내면에 어떻게 내재화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며, 환경적인 요인들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대처전략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김은영, 2001).

본 연구에 사용된 진로탐색장애 척도(김은영, 2001)는 사회인지모델의 통합적인 이론적 틀 속에서 내적, 외적, 상호작용적 원천을 포함하는 다

양한 원천에서 진로장애가 기인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현실이나 실제적인 정보에 기인하는 객관적인 장애요소보다는 현재 존재하거나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각된 진로 관련 어려움'이 진로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진로탐색장애 척도의 구성은 9개 요인(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은영(2001)의 연구결과에서 이 척도는 진로 미성숙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었고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유의미하게 판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한 학생에 비해 진로문제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를 사용하여 진로선택 관련 문항에 따라 진로장애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부산지역 P대학교 재학생 1309명으로 수산과학대학(6개 학과 또는 학부 : 식품생명공학부 208명, 해양산업경영학부 113명, 수산해양생명과학과군 139명, 수산생명의학과 63명, 수·해양산업교육과 29명,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107명) 659명(50.3%)과 환경·해양대학(4개 학과 또는 학부 : 환경시스템공학부 119명, 지구환경과학과군 157명, 해양공학 및 조선공학과군 174명, 환경대기 및 위성정보과학과군 200명) 650명(49.7%)이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628명(48.0%), 여학생이 681명(52.0%)이었다. 그리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313명(23.9%), 2학년이 344명(26.3%), 3학년이 350명(26.7%), 4학년이 302명(23.1%)이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진로선택 관련 내용 6문항과 진로탐색장애 검사 45문항이었다. 진로선택 관련 문항은 전공을 선택 이유, 전공만족 정도, 전공불만 차후대처, 수강과목선택 기준, 직업선택 가치 기준, 취업준비 시 어려운 점 등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문항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시 진로선택 관련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묻는 문항들이다. 그리고 진로탐색장애 검사(KCBI: 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애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김은영(2001)이 개발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고, 리커트식 4점 척도로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2점, '대체로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처리하였다. 이 검사는 김은영(2001)이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차 타당화 연구에서 진로 미성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 진로 미성숙도를 36%설명하였고,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유의미하게 판별할 수 있었던 도구이다. 진로탐색장애 검사의 하위 요인들은 대인관계 어려움(5문항), 자기명확성 부족(7문항), 경제적 어려움(5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5문항), 직업정보 부족(5문항), 나이문제(4문항), 신체적 열등감(4문항), 흥미부족(4문항), 미래불안(6문항) 등이고 본 연구에서의 검사 신뢰도( $\alpha$ )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통계처리

본 연구는 2008년 10월에 P대학 수산과학대학 및 환경·해양대학 10개 학과 조교 선생님께 본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문지 실시를 부탁하였고, 설문지 회수 후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설문지마다 스크린 작업을 한 후 최종 1309개의 설문지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통계 처리 방법을 위해 SPSS12.0(Windows용)을 사용하였으며, 수해양

대학 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진로탐색장애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했는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성별, 학년별 진로탐색장애

먼저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전체 진로장애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면 <표 1>과 같다. 진로탐색 전체 평균은 2.53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미래불안이 2.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직업정보 부족이 2.87, 경제적 어려움이 2.73, 자기명확성 부족이 2.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장애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표 2>, 진로탐색장애 전체에 대한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진로탐색장애 하위요인별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나이 문제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즉 여학생들은 자기명확성 부족과 직업정보 부족으로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남학생들에 비

<표 1> 진로탐색장애의 평균과 표준편차

영역	M	SD
진로탐색장애	<b>2.53</b>	.58
대인관계 어려움	2.36	.80
자기명확성 부족	2.63	.76
경제적 어려움	2.73	.82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45	.83
직업정보 부족	2.87	.78
나이 문제	2.19	.94
신체적 열등감	2.04	.90
흥미부족	2.44	.76
미래불안	2.91	.81

해 더 높았으며, 남학생들은 나이문제로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여학생들에 비해 높았다.

학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요인에 관해 변량분석 한 결과<표 3>, 먼저 진로탐색장애 전체에서  $p<.01$ 수준에서 학년별 평균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1학년이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학년, 2학년, 4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어려움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1학년이 가장 높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았다. 자기명확성 부족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표 2>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

영역	남자(N=628)		여자(N=681)		t
	M	SD	M	SD	
진로탐색장애	2.52	.63	2.53	.53	.45
대인관계 어려움	2.37	.83	2.36	.77	.21
자기명확성 부족	2.55	.81	2.71	.74	3.59 ***
경제적 어려움	2.76	.86	2.70	.78	1.42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28	.86	2.22	.80	1.16
직업정보 부족	2.76	.73	2.97	.80	4.75 ***
나이 문제	2.31	.99	2.09	.87	4.26 ***
신체적 열등감	2.08	.96	2.01	.84	1.44
흥미부족	2.46	.76	2.43	.77	.81
미래불안	2.86	.85	2.95	.77	1.91

\*\*\* $p<.001$

<표 3> 학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

영역	1학년(N=313)		2학년(N=344)		3학년(N=350)		4학년(N=302)		F
	M	SD	M	SD	M	SD	M	SD	
진로탐색장애	<b>2.59</b>	.56	<b>2.53</b>	.55	<b>2.55</b>	.60	<b>2.42</b>	.60	4.91**
대인관계 어려움	2.53	.78	2.41	.82	2.35	.78	2.15	.76	12.05***
자기명확성 부족	2.69	.77	2.63	.73	2.71	.80	2.50	.78	4.88**
경제적 어려움	2.73	.81	2.73	.84	2.75	.81	2.70	.83	.16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35	.83	2.22	.80	2.27	.89	2.15	.77	3.00*
직업정보 부족	3.03	.75	2.98	.72	2.81	.81	2.64	.77	16.17***
나이 문제	2.11	.90	2.12	.86	2.29	.98	2.25	.99	2.90*
신체적 열등감	2.11	.93	2.01	.83	2.11	.92	1.92	.91	3.20*
흥미부족	2.56	.74	2.43	.77	2.45	.77	2.32	.75	5.15**
미래불안	2.95	.84	2.90	.80	2.91	.77	2.88	.83	.43

\*p<.05, \*\*p<.01, \*\*\*p<.001

1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았다. 직업정보 부족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고 3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열등감은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1학년과 3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흥미부족은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1학년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서열 및 학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살펴보았다 <표 4> <표 5>.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학년별 진로탐색장애 점수는 유의미하게(\*\*p<.01) 차이가 났다. 그러나 성별과 학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표 5> 1학년 여학생들이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학

<표 4>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SS	df	MS	F
성별	.172	1	.172	.51
학년	5.226	3	1.742	5.20**
성별×학년	2.533	3	.844	2.52
오차	435.754	1301	.335	

\*\*p<.01

년 남학생들을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 남학생들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 평균 비교

성별	학년	N	M	SD
남	1학년	156	2.55	.59
	2학년	166	2.51	.60
	3학년	169	2.61	.66
	4학년	137	2.37	.66
여	1학년	157	2.64	.54
	2학년	178	2.54	.50
	3학년	181	2.49	.54
	4학년	165	2.46	.54

\*\*p<.01

## 2. 진로선택과 진로탐색장애

다음으로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공선택별 진로탐색장애를 알아본 결과 <표 6>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는데, 교수진이 좋아서, 성적 수준에 맞아서,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높았다.

자신의 전공 만족 정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알아본 결과 <표 7>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전공이 약간 불만과 보통, 매우 불

만에서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높았다.

〈표 6〉 전공선택이유별 진로탐색장애

전공선택 이유	N	M	SD	F
취업전망	203	2.38	.60	14.69***
적성과 흥미	363	2.39	.60	
성적수준	524	2.63	.56	
교수진	12	2.72	.69	
주위사람 권유	199	2.62	.52	

\*\*\*p<.001

〈표 7〉 전공만족별 진로탐색장애

전공만족	N	M	SD	F
매우만족	155	2.33	.71	13.35***
약간만족	395	2.43	.57	
보통	505	2.59	.55	
약간불만	202	2.69	.52	
매우불만	51	2.56	.53	

\*\*\*p<.001

전공이 불만인 학생들의 차후 대처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알아본 결과 〈표 8〉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부전공을 하겠다는 학생들과 휴학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학생들의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공불만 차후 대처에 따른 진로탐색장애 점수는 편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진로탐색 장애 전체 평균 2.53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8〉 전공불만 차후대처별 진로탐색장애

전공불만차후대처	N	M	SD	F
그냥 있음	85	2.68	.48	2.27*
전과	40	2.69	.48	
편입	32	2.41	.55	
휴학해서 생각	51	2.75	.54	
복수전공	28	2.66	.56	
부전공	10	2.86	.38	

\*p<.05

수강과목 선택기준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살펴보면 〈표 9〉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특히 친구들과 함께 수강할 때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점 받기 쉽거나 시간표 작성이 편한 과목을 선택할 때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수의 강의 방법을 기준으로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9〉 수강과목 선택기준별 진로탐색장애

수강과목선택기준	N	M	SD	F
장래취직 도움 여부	267	2.48	.60	6.30***
평소 하고 싶은 내용	356	2.46	.59	
친구들과 함께 수강	104	2.77	.53	
학점 받기 쉬움	328	2.58	.56	
시간표작성 편한 과목	15	2.56	.57	
교수의 강의 방법	84	2.40	.60	

\*\*\*p<.001

〈표 10〉 직업선택기준별 진로탐색장애

직업선택기준	N	M	SD	F
직업 안정성	339	2.62	.55	6.17***
사회적 인정	85	2.52	.66	
보수	255	2.68	.59	
일의 내용	56	2.48	.60	
인간적 근무환경	68	2.36	.52	
적성과 흥미	358	2.41	.59	
여가시간활용	42	2.58	.51	
사회봉사	1	2.49	.0	
발전가능성	68	2.34	.52	
근무지역	4	2.71	.51	

\*\*\*p<.001

직업선택 기준에 따른 진로선택장애를 살펴보면 〈표 10〉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근무지역이나 보수에 의한 기준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 발전 가능성이나 적성과 흥미에 의해 직업을 선택할 때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취업준비 시 애로사항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결과 〈표 11〉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적성과 흥미 학신 부족에서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



장 높았다.

〈표 11〉 취업준비 애로사항별 진로탐색장애

취업준비 애로사항	N	M	SD	F
적성과 흥미 확신부족	202	2.63	.52	2.52*
진공과목성적 부족	116	2.53	.64	
영어성적 부족	380	2.54	.60	
취업시험 준비	181	2.55	.56	
진공교수의 관심 부족	46	2.41	.68	
취업정보 부재	178	2.47	.54	
본인의 준비 부족	186	2.43	.60	

\*p<.05

## V. 결과 및 토의

본 연구는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해양대학 학생들이 진로발달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요인은 미래불안과 직업정보부족이었다. 이는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진로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와 다양한 직업세계 및 자신에게 맞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측면이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가장 큰 진로 발달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성별에 의한 진로탐색장애를 살펴본 결과 진로탐색장애 전체에서는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여학생들의 경우 자기명확성부족과 직업정보부족에서 진로 장애를 더 경험하고 있었으며 남학생들은 나이문제로 진로장애를 더 경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여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고 주장하는 능력이 부족한 측면에서 진로장애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고, 남학생들은 나이 때문에 진로를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서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김은영(2001)에서도 성별에 다른 진로탐색장애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하위영역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어려움과 직업정보 부족에서, 남학생의 경우 나이문제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거의 비슷한 맥락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진다.

학년별 진로탐색장애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학년이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높았고 3학년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별 차이가 없다고 한 김은영(2001)의 연구결과와는 대조를 이루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탐색장애는 감소한다는 이연미(2001)의 연구와도 다소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하위요인별에서도 대인관계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등에서 1학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자기명확성 부족과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에서는 3학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1학년과 3학년이 진로탐색장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특히 1학년에 대한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이 집단적 특수성을 띠고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고, 3학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로장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향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실시해야한다고 보아진다.

또 성별과 학년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로탐색장애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본 결과, 성별과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성차와 학년이 진로탐색장애에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과 학년에 따라 진로탐색장애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1학년 중 여학생이 진로탐색장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3학년 남학생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진로지도 시 특히 1학년 여학생들과 3학년 남학생들을 초점화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진로탐색장애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진로선택 관련 문항에 따라 진로탐색장애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공선택 이유별 진로선택장애에서는 교수진이 좋아서, 성적 수준에 맞아서,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진로 장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성적수준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학 당국은 성적위주의 입시전형 방법을 새로이 개선하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자신의 전공 만족 정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알아본 결과, 전공에 대해 약간 불만과 보통, 매우 불만에서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공만족도가 매우 불만스러운 경우보다 보통과 약간불만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진로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지도 시 전공 만족도가 보통이나 약간 불만이라고 표현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문제를 덜 가진 학생으로 착각하지 말아야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전공이 불만인 학생들의 차후 대처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알아본 결과, 부전공을 하겠다는 학생들과 휴학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학생들이 진로장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전공 선택 학생들과 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프로그램도 초점화하여 구상될 필요가 있다. 수강과목 선택기준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살펴본 결과, 친구들과 함께 수강할 때나 학점 받기 쉽거나 시간표 작성이 편한 과목을 선택할 때 진로 장애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특히 친구들과 함께 수강할 경우 진로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올바른 수강신청에 대한 지도가 진로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직업선택 기준에 따른 진로선택장애 결과에서는 근무지역이나 보수에 의해 직업을 선택할 때 진로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반면 발전 가능성이 적성과 흥미에 의해 직업을 선택할 때 진로

로 장애를 적게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의 발전 가능성이나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직업윤리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 시 애로사항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살펴 본 결과, 적성과 흥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학생들이 진로 장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나온 결과와 연결시켜 보았을 때 대학의 진로지도 및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포인트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검사 활동이나 개인 및 집단상담을 통하여 가능한 한 학생들이 개인별로 진로지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진로상담에서 심리상담을 도외시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진로상담 내담자에게 본래의 진로문제에서 벗어난 심리상담만을 실시하는 '심리적 환원주의'도 문제가 되지만(김계현, 1994), 심리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관한 상담만을 실시하는 것도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김봉환, 1997). 따라서 심리적 문제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거나 진로 장애를 많이 지각하는 내담자들은 심리내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심리상담을 진로상담에 선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김계현(1994). 상담심리학의 최근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6(1), 142~170, 서울 : 학지사.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 김병석 · 정철영(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 학지사.
- 김은영(2001).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 논문.
- 윤소정 · 신수진 · 이은영(2007). 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직업적 성격에 미치는 영향, 수해양교육연구, 19(2), 206~218.
- 이연미(2001).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2008). 진로선택 및 발달 이론의 통합에 관한 소고, 수해양교육연구, 20(2), 201~208.
- 차타순(1996). 진로선택을 위한 Holland의 직업적 성격 유형론, 수해양교육연구 8(1), 76~91.
- 차타순(2008). 2007학년도 신입생 진로 의식 분석, 학생생활연구 제24집, 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황희숙 · 조수진(2007). 2006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3집, 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황희숙 · 차타순(2007). 2006년 재학생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학생생활연구 제23집, 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Gottfredson, L. S.(1981). Circumscription aspirations [Monograp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Holland, J. L.(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 A theory of career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Holland, J. L.(1985).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VPI) Manual(1985 edition), Odess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Krumboltz, J. D.(1979). A 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A. M. Mitchell, G. G. Jame, & J. D. Krumboltz(Eds.), social learning and career decision making(19~49), Cranston, RI : Carrle Press.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Mitchell, L. K., & Krumboltz, J. D.(1990). Social learning approach to career decision making : Krumboltz's Theory. In D. Brown and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145~196). (2nd Ed.), San Francisco : Jossey -Bass.
- Parsons(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 Swanson, J. L., & Woitke, M. B.(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31~450.
- Swanson, J. L., & Tokar, D. M.(1991a).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 논문접수일 : 2009년 07월 20일
  - 논문심사일 : 1차 - 2009년 08월 05일
  - 게재확정일 : 2009년 10월 05일